

전남대병원, 대한심장학회 최다논문 발표

내달 23-25일 추계학술대회서 총 72편 초록 채택 “광주 R&D특구 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큰 힘”

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72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대한심장학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전국 최다 논문 발표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따르면 순환기내과와 심혈관계 융합센터는 오는 9월 23일-25일까지 대구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66회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51편·포스터 7편·공통연구 14편 등 총 72편의 초록이 채택됐다. 이번 학회에서는 총 400여편

의 연재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남대병원은 교수·전임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심장센터 김정심 간호사는 ‘당뇨병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지질 변화의 성별 차이’, 심초음파실 조은영 간호사는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폐동맥압의 변화에 대한 예후 예측’ 등 총 3명의 간호사가 구연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심뇌혈관질환센터 김정훈 팀장(방



정명호 교수는 ‘비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전 흡입술’, 심혈관센터 김만수 방사선사는 ‘긴 심장혈관 병변에 대한 중첩 시술한 약물용출 스텐트 경험’ 등 5명의 방사선사가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의 최다 논문 발표 선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 및 연구를 해온 결과물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를 주도해 왔으며, 지난 1996년에는 국내 최초로

동물 심도자살을 설립, 돼지 심장을 이용한 심혈관계 스텐트 개발 등의 다양한 기초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심혈관계 특성화센터 및 융합센터로 선정되는 등 심부전 치료 및 줄기 세포 연구에도 매진해 오고 있다.

정명호 심혈관계 융합센터장은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지난 20년동안 심장병 환자의 치료와 함께 다양한 기초 및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논문 1천851편, 특허 80건, 저서 89권 등의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광주 R&D 특구 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광주기독병원, 난민 의료봉사

광주기독병원은 23일 “최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광주로 귀국해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갯골리장교회에서 실시된 이번 광주기독병원 의료봉사팀은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의 의료진과 병원내 발현치유봉사팀을 포함한 26명의 병원 직원들이 참여해 3시간 동안 연인원 44명을 진료했다. 또한 초음파검사, 수액, 투약, 발마사지 등 84건의 봉사 활동도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팀을 이끈 고영춘 광주기독병원 호흡기내과 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간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이 주춤했었는데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주말 오후에도 잠시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우리의 작은 수고에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의 마음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4개 진료과의 의료진과 병원내 발현치유봉사팀을 포함한 26명의 병원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니 오히려 저희가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광주고려사들과- (사)세움과나눔과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복기자

조선대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 협력 업무협약

디지털 의료환경 전환 실현...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조선대병원이 모니터코퍼레이션과 업무협약을 통해 최첨단 디지털 의료환경 전환에 나섰다.

2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주)모니터코퍼레이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의료 신기술 업무협약식을 열고 지난 18일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중 병원장을 비롯해 임동훈 부원장, 신봉석 기획실장, 신병철 진료부장, 김운성 교육연구부장, 이현영 의료질관리실장, 김진웅 의료정

보실장(영상의학과장)이 참석했으며, (주)모니터코퍼레이션 이경준 대표이사, 임인교 영업개발·팀장, (주)다연 허태경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병원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분야 진료 및 연구 경쟁력과 모니터코퍼레이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자동영상분석 솔루션 및 빅데이터 연구 등 디지털 의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은 인공지능(AI) 기반 흉부CT 자동영상분석 진단보조 솔루션인 루카스(LuCAS)를 도입할 예정이며, 루카스는 흉부CT 영상에서 결절의 검출과 정량화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식약처 및 국제 표준 허가 받은 국내 최초 최상위 등급을 받아 기술력이 입증된 솔루션이다.

또 인공지능 분석의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이며, Always-on 시스템으로 24

시간 대기하며 촬영 즉시 분석을 시작해 판독 초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대기 시간 감소가 기대된다.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은 “모니터코퍼레이션과 함께 조선대병원 시스템의 디지털 의료환경 전환을 실현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준 모니터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의료분야의 연구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조선대병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암(癌)은 왜 생길까?



노정균 비엔날레 병원장

예전에 한 노인요양병원이 암병동을 증설해 운영하는 암병동에서 전담의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병원 측에서는 암 병동 시설 개조공사와 기타 준비로 인해 예상한 날짜보다 훨씬 더 오랜 일이 미뤄지고 있었다. 병원 이사장은 조급한 마음에 환자를 하루라도 빨리 들이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에 젊은 유방암 환자의 입원 문의가 오자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 환자를 받게되라고 입원을 수락했다. 사실 병원은 시설이나 인력 등 제반 사항이 아직은 환자를 받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입원을 수락한 유방암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뵐사. 침상 의자의 완전 외상 환자였고 눈만 쾅하니 전신의 피부가 상점한 흡사 미이라 같은 상태였다. 환자는 40대 초중반의 미스였는데, 눈만 껌껌거리면서 주치의인 필자를 쳐다보며 세상을 원망하는 듯 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 환우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보호자는 환자를 모시기 전에 필자와 먼저 만나서 여러 지리한 얘기를 많이 나온 상태였다. 당시만 해도 그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가 이 정도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었다. 그 보호자가 살짝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 보호자는 부모도, 친인척도 아니었다. 그 여성 환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던 기체조의 전문가였다. 그 환우 가족에게는 이 분이 사법이고 판장이었고 정신적인 지주였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면 그냥 무조건 따르는 입장이었다. 그 선생님이 필자와 먼저 만나서 그 환우를 이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마음을 먹었고 가족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말기 암 환우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우리 병원으로 오게 됐던 것이었다. 솔직히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될 정도의 상태였다. 이미 물은 얼질러졌다.

필자는 나를 최선을 다하며 그 환

우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잠으로 힘들었다. 말도 거의 안하고 눈만 껌껌거리며 거리가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다. 이러저러한 질문에 답변도 없었다. 싫다는 표현도 거의 없었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유일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당시 필자는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근무를 하던 때다. 그래서 정규 휴식 시간 이외에도 새벽 일찍 운동을 나가며 그 환우가 머무는 병실에 들러 복도 밖에서 병실 문 유리창 너머로 환자의 동향을 살피고 낮이든 밤이든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봐왔다. 그럴 때면 그 환우는 인기척을 느껴며 나와 눈을 마주쳤다가는 이내 고개를 또 돌려곤 했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가면서 환우와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환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모든 치료 또한 거부했었다. 잠으로 난공불락이었다.

환자는 더워서 기저귀만 착용하고 옷은 모두 벗어버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우측 유방은 암덩어리가 커질대로 커져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진물도 나는 그런 상태였다. 욕창 예방을 위해 에어 매트를 보호자에서 요청해 적용했지만 환자로 대금 욕창이 생겨버렸다. 환자가 유일하게 허용한 처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복합 영양제가 유일했다.

환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힘들다 보니 그 보호자 선생님과 환우의 모친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다. 환우의 길지 않은 삶은 참으로 특이했다. 표면적으로 엄마와는 사이가 좋지는 않았고 아빠와는 조금 더 친숙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정신적 지주 선생님의 말씀은 거의 교주의 가르침처럼 따랐던 것 같았다.

한 2주 정도 입원했을까? 결국 환우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고통 없는 하늘 나라로 가버렸다. 마지막 몇 일간 환자가 아주 괴로워 할 때는 그 교수 선생님이 밤으로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 함께 해 주었다. 그리고 환우가 영면에 든 뒤에 그 교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어보니 직감적으로 그 날 밤을 못 넘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유명을 달리한 환우는 꽤나 소심하고 고집이 세었다는 것이 교수 선생님이나 환우 어머니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에 암에 걸려 덧없이 가버렸다.

암(癌)은 왜 생길까?

www.slhealth.co.kr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7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기기인증

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시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SP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